

포스트 디지털 세대에 대한 교육목회 유형

이원일(영남신학대학교 / 교수)

leewil@hanmail.net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교육학의 실천신학적 접근에 대한 연구로서 실천신학적 접근의 유형에 따른 아홉 가지 교육목회 유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역의 현장으로서 교회, 사회 이외에 개인적 자아의 차원과 사역을 강조하고자 하며, 이미 논의된 철학적이며 신학적 관점에서의 개인적 실존적 차원,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삶의 주기 신학의 차원 이외에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포스트 디지털 시대가 주는 함의에 기초하고자 한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의 인간화로 말미암는 친인간적 디지털 문화를 의미하며, 따뜻한 디지털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를 말한다. 이와 연관된 세대를 포스트 디지털 세대라고 한다. 포스트 디지털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는 기존의 교회적 차원 및 사회적 차원과 함께 개인적 차원을 포함한다. 세 가지의 교육목회 현장에 대해 간학문적 특성에 따라 비판적 과학적 방법, 비판적 고백적 방법, 비판적 상관 관계적 방법 등으로 아홉 가지의 교육목회 유형이 분류된다. 아홉 가지의 교육목회 유형들에 따른 포스트 디지털 세대가 함양해야 할 대표적인 핵심역량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관계적 정체성, 의사소통, 하이터치, 제자로서의 삶, 매체활용, 통합적 소명, 협업능력,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회복탄력성 등이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포스트 디지털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는 역량들에 대한 함양을 필요로 한다.

《 주제어 》

실천신학, 포스트 디지털 세대, 개인적 차원, 교육목회, 핵심역량

I. 들어가는 말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은 하나의 통일된 접근 방법론 보다는 다양한 접근 방법론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학문이다. 기독교교육학에 대한 실천신학적 접근에서 사역의 주체인 목회자, 교회의 회중, 그리고 하나님의 프락시스 등을 중심으로 하여 목회자적 유형, 회중적 유형, 하나님의 프락시스 유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폴링과 밀러, 그리고 이에 영향 받은 학자들에 의하면 실천신학의 유형을 간학문적 관련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독교 전통과 일반학문 중에 어느 쪽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다. 강조에 따라 비판적 과학적 방법, 비판적 고백적 방법, 그리고 비판적 상관관계적 방법 등이며, 이를 세로축으로 삼는다

반면에 가로축으로는 교회, 사회 등으로의 분류이다. 교회를 중심축으로 하는 경우와 사회를 중심축으로 하는 경우이다. 교회와 사회는 둘 중에 어느 부분이 배제되기 보다는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이러한 세로축과 가로축으로 말미암는 경우의 수로 인하여 실천신학은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진다(강희천, 1999; 이원일, 2014; Poling & Miller, 1985). 이러한 유형 분류는 실천신학의 다양한 접근들을 포괄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다.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으로 말미암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가로축으로서 교회와 사회만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폴링과 밀러가 이미 제시하고 있는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중심축 이외에 개인적 자아의 차원도 실천신학 유형 분류를 위해 하나의 축으로 삼아야 하며, 이에 따라 아홉 가지의 교육목회 유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인적 자아의 차원은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관점에서 팔리(Farley, 1983, 21-41)의 개인적-실존적 차원,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슈바이처(Schweitzer,

2004, 124, 125)의 삶의 주기 신학 등으로 이미 언급되기도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시대적 변화의 측면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포스트 디지털 시대(Post Digital Age)의 개인적 자아의 차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오늘의 시대를 디지털 시대를 넘어선 디지털 이후의 시대라고도 한다. 본 글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물음들은 포스트 디지털 시대가 갖는 특징들과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들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에 따른 교육목회 유형의 특징들은 무엇이며, 실천신학으로서의 교육목회 유형들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이러한 교육목회 유형들에 따른 핵심역량들은 무엇인가?” 등이다.

II. 포스트 디지털 세대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주로 과학에 영향을 받았듯이, 포스트 디지털 시대도 과학 기술의 변화에 영향을 의해서 이다. 전자과학에 영향을 받은 디지털과 디지털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 포스트 디지털의 차이점은 디지털이 두 손가락을 주로 사용한다면, 포스트 디지털은 열 손가락을 모두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포스트 디지털은 과학 기술의 발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통하여 형성되는 ‘친 인간적’ 디지털문화를 말하며, 이해는 인간의 신체성과 감성이 포함된 의식으로 말미암는다는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Alexenberg, 2011, 9, 33, 35; Jandrić, 2020, 254; Jordan, 2020, 61, 77).

달리 언급하자면, 포스트 디지털은 과학, 예술, 그리고 전인적 인간의 만남으로 말미암는 문화를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 문예, 그리고 영성 등의 상호작용으로 말미암는 디지털 기술의 인간화(humanization)를 포스트 디지털 이라고 한다. 또한 포스트 디지털은 디지털과 비디지털(non-digital), 하

이테크와 하이터치(high touch), 가상공간과 현실공간, 물리학과 생물학, 지역과 세계 등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의해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알렉센벅에 의하면 오늘날은 포스트 디지털 시대이며, 포스트 디지털 시대는 포스트모던의 경험과 헤브라이즘(hebraism) 또는 유다이즘(judaism) 사과의 접합점(confluence)의 시대이다(2011, 18). 이는 안정적, 획일적, 체계적, 그리고 닫힌 체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모더니즘과 헬레니즘(hellenism) 등의 접합점과는 달리 다양성, 불안정, 비선형 네트워크, 그리고 열린 체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알렉센벅이 헤브라이즘을 강조하는 것은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에 비해 전인적인 참여에 의한 이해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알렉센벅은 접합점 이론에 기초하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특징을 포스트 디지털 관점(postdigital perspective)이라고도 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인간화를 말하며, 디지털 기술에 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 지역과 세계화의 상호작용, 일상생활과 영성의 소통, 인간의 감각과 경험의 상호작용, 예술과 디지털의 접합 등을 탐색하고자 하는 관점 등이다(2011, 21).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와는 달리 포스트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주도권이 있으며, 디지털이 아닌 영역을 포괄한다(Naisbitt, 2000, 18-24; Alexenberg, 2011, 35; Jordan, 2020, 63-64, 233). 달리 말하자면,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따라 삶의 양식이 바뀌듯이, 인간 삶의 문화가 아날로그, 디지털, 그리고 포스트 디지털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오늘날은 디지털의 인간화로 말미암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임을 말한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세대를 가리켜 포스트 디지털 세대(Post Digital Generation)라고 한다. 영문의 첫 글자를 모아서 PDG세대 라고 할 수 있으며, 밀레니엄 세대와 관련해서는 MP세대 또는 간략히 P세대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 디지털 세대는 “무의식적인 디지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성장한 세대”(안현정·송민희, 2005, 221)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언급하자면 디지털 환경을 어색하게 여겨지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여기는 디지

털 세대를 넘어서서 ‘친인간적’ 디지털 환경과 문화에 익숙한 세대를 말한다. 21세기 인공지능시대를 넘어서서 인공감정시대를 강조하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특징들을 아홉 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안현정·송민희, 2005; 천현득, 2017).

첫째, 포스트 모더니즘이 거대담론의 모더니즘에 대한 해체를 말하고, 포스트 휴머니즘이 보편적 인간 본성의 가치를 말하는 휴머니즘에 대한 해체를 통하여 인간의 차이성, 특수성, 다층성 등을 통틀어 인간의 개별성을 긍정하듯이, 포스트 디지털은 디지털이라는 보편성에 대한 해체를 통하여 개별성을 지닌 디지털을 의미한다(주현식, 2018, 134). 포스트 디지털 세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는 메타모더니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둘째, 개인 중심을 특징으로 하지만 자기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있다. 고립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주의로부터 새로운 개인주의이다. 관계적 개인이다. 관계적 개인이란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객관화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적인 따뜻한 정서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개인을 말한다. 인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매체로서의 디지털을 사용하는 세대이다. 그리고 디지털을 사용하면서도 개별성을 지닌 자기만의 특성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셋째, 인간성의 핵심을 정서적인 차원에서 찾으려고 한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communication)에 있어서 인지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서적인 차원을 중요하게 여긴다. 정서를 고려하는 소통을 위해 시각적인 이미지(visual image)는 문자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필수적인 차원이다.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문자만으로 제한하기보다 역동적인 청각 등의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한다. 지식 전달 차원에서의 설명 보다는 이미지와 은유가 포함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세대이다(Jordan, 2020, 2).

넷째,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긍정하며, 그 일상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 미래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현재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가치 있게 여긴다(Alexenberg, 2011, 82). 미래의 어느 곳 또는 다른 곳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보다는 삶의 자리

인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또한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자기만의 것으로 전유하기를 원한다. 계속되는 변화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한다.

다섯째, 수동적인 관객의 위치에 있기 보다는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몰입하는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분법적 파편화로부터 융합적 관계로의 변화를 말하며, 능동적인 목회자와 수동적인 교인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부터 목회자와 교인은 상호협력자가 됨을 말한다. 심지어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단순하게 눈으로 보기만 하거나, 귀로 듣기만 하기보다 전인적으로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면서 배우려고 한다(주현식, 2018, 135-150; Alexenberg, 2011, 83, 117; Negroponce, 1998). 포스트 디지털 세대는 학습에 있어서 디지털 세대보다 더 능동적으로 전인적인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섯째,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특징은 MZ세대의 특징과 유사한 측면들이 있다. MZ세대는 1981~1996년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1997~2000년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들은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특징”(오수연, 2021, 52)을 보인다. MZ세대는 베이붐 세대가 “우리라는 집단 의식의 발달로 나의 시간을 공유재로 활용하며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불모로 인내하며 사는 것”(최은희, 2021, 29)을 특징으로 하는 베이붐 세대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있다.

일곱째, MZ세대와 유사하게 포스트 디지털 세대는 글이나 사진 등의 콘텐츠와 영상이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등과의 트랜스 미디어에 익숙하며, 이를 통하여 자기의 개성과 취향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자기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라고 여겨지는 환경, 동물보호, 인권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이주영·조경숙, 2021, 38; 홍소희, 2021, 114; Jordan, 2020, 2).

여덟째, 포스트 디지털 세대는 디지털 매체의 상호작용성과 개방성에 의

숙한 MZ세대 보다 디지털 생활 속에서도 더 인간적인 관계에 가치를 두고 있는 디지털 문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안현정·송민희, 223). 친인간적 디지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곧 포스트 디지털 세대이다. 디지털의 인간화 현상을 추구하는 세대이다(주현식, 2018, 129). 디지털 문화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감정이 있는 따뜻한 디지털 문화, 더 나아가 영성적인 측면도 함께 추구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아홉째, 포스트 디지털 세대는 2000년 초반 이후에 출생한 미래세대를 포함한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것을 넘어서 사이보그라는 디지털과 인간의 결합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1946-1964 출생) 이후의 X세대(1970년 이후 출생), Y세대(1980년 이후 출생), 그리고 Z세대(1995년 이후 출생)를 비롯하여 더 어린 나이인 오늘날의 아동 및 청소년 등의 미래세대도 포함한다(김영래, 2021, 88, 94, 99; 김정준, 2016, 527).

Ⅲ. 포스트 디지털 세대 교육목회 유형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는 자기 개인을 중요하게 여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참여성, 정서와 영성을 비롯한 전인성, 개인의 삶에서 느껴지는 일상의 소중함 등에 가치를 부가하며 관계적 개인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폴링과 밀러 등이 제시한 실천신학 유형 분류 중에서 가로 축에 해당하는 교육목회의 현장으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의 사회 변혁과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회 등의 구분만으로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를 포용하기 어렵다. 교회로 하여금 영성으로 말미암는 관계적 개인으로의 양육도 실천신학으로서 교육목회 현장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시대이다.

실천신학 유형 분류에 있어서 관계적 개인에 대하여 세로축은 성경 및

기독교 전통과 일반학문 및 문화와의 관계설정에 따라 비판적 과학적 방법, 비판적 고백적 방법, 그리고 비판적 상관 관계적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비판적이라는 용어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전통을 무비판적 또는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성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권력 등에 대한 왜곡, 편견 등을 개인적, 집단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이해를 추구해 나감을 의미한다.

세 가지의 세로축 중에서 비판적 과학적 방법은 일반학문들이 실천신학을 위한 규범을 제공하고 신학적 전통은 부차적 역할을 하는 경우이며, 비판적 고백적 방법은 기독교 전통이 실천신학을 위한 규범이 되고 일반학문들은 그 영향력을 최소화해서 조심스럽게 사용된다. 그리고 비판적 상관관계적 방법은 기독교 전통과 일반학문과의 상호주관적 대화를 지향하며,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자 한다.

1. 비판적 과학적 방법

경험과 문화에서 출발하는 아래로 부터의 접근이라고도 하는 귀납법적 접근에 해당하는 교육목회 유형이다. 비판적 과학적 방법에 의한 교육목회는 신앙의 개방성(openness)을 중요하게 여기며, 발달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 기초한 목회상담 등을 통하여 자아실현 및 개인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목회를 추구한다.

개인으로 하여금 과학 기술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예술을 포함한 디지털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통하여 다른 포스트 디지털 세대와의 소통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며, 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자신과는 다른 자신으로 변형하며, 자기 자신으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게 한다(Alexenberg, 2011, 70).

비판적 과학적 방법에서 포스트 디지털 시대 학습내용으로는 개인의 회

복탄력성(resilience) 함양을 비롯하여, 개인으로서 독특성 및 개인의 적성에 따른 신앙적 직업교육 등이 요구된다. 학습 방법으로는 직접 참여와 경험으로 말미암는 인식론에 의한 교육목회 유형이다. 또한 개인에 대한 관찰 및 들음으로 말미암는 신앙 대상자의 흥미, 관심, 필요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이에 근거로 하여 교육목회를 추구한다.

2. 비판적 고백적 방법

철학적 및 신학적 전제에서 출발하는 위로부터의 접근이라고도 하는 연역법적 접근에 해당하며, 신앙으로 말미암는 소속감(belonging)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초월성 강조에 기초하여 개인의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목회의 유형이다. 교회 역사적으로는 대각성 운동을 비롯하여 이에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의 부흥운동에 근거하고 있다.

비판적 고백적 관점에 의하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는 포스트 디지털 문화를 살아가는 미래세대는 자신들의 삶에 방향을 찾기 위해 영적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달리 언급하자면 포스트 디지털 시대는 영성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으며, 포스트 디지털 세대는 하이 터치로서의 영성을 추구하는 미래세대 이다. 교회의 목회에 있어서 하이테크의 시대에도 신앙공동체적 영성 형성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며, 영적 의미를 갖게 하는 교육목회이다(김정준, 2016; Alexenberg, 2011, 145).

비판적 고백적 관점에 의하면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는 신앙 대상자와 관련된 목회자, 교사 등의 신앙 지도자 및 부모의 리더십으로 말미암는 개인의 신앙지도를 강조하며 교회에 소속감으로 말미암는 신앙적 정체성을 갖도록 한다. 신앙 지도자들의 설교 및 전달 중심에 의한 인식론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강조로 말미암는 개인의 회심과 영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유적, 상징적, 문자적 이해를 비롯하여 교회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포스트 디지털 문화를 활용한다.

3. 비판적 상관 관계적 방법

파편화되고 이분법적인 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석학적이며 상관 관계적 접근에 의한 방법론이며,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조화 및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양식에 기초하는 방법론이다(Alexenberg, 2011, 90). 신앙인으로 하여금 소속감과 개방성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자리로서 교회 범위를 넘어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강조하며,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론이다.

개인으로 하여금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융합성이라고도 하는 접합점을 이해하고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넓게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접합점이며,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디지털 기술과 인간, 그리고 개인, 교회, 그리고 사회 등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경계성 형성을 특징으로 한다. 개인으로서의 신앙 지도자와 신앙 대상자 사이에 상호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화적 상호주관성으로 말미암는 인식론의 이해를 갖는다. 더 나아가 실재(reality)는 결과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실재를 형성해 나가는 순례자적 과정성을 가지 있게 여기는 관점이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삶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창의적인 신앙인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특성인 간학문성으로 말미암는 간학문적 교육과정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회 유형이다.

4. 종합적 논의

포스트 디지털 시대는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지만 디지털 다음의 시대라고 하기 보다는 디지털의 특성이 다방면으로 심화되는 시대이다. 디지털이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으로 사람다운 삶에, 심지어 정서적인 측면에 까지 스며들어 있고 표현되는 시대를 말한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포스

트 디지털 세대는 무엇보다 관계적 개인의 시대이다(Ricoeur, 1992, 140, 163, 168). 이기적이고 고립적인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감성을 지닌 개인이다. 이는 보편성을 지닌 디지털이라는 관점에서 개별성을 지닌 디지털로의 변화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오늘날 실천신학으로서의 교육목회 현장은 교회형성과 사회형성 뿐만 아니라 개인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목회 현장으로서 개인형성을 고려하는 측면의 세 가지 유형의 교육목회는 디지털 매체에 담지 되어 질 수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되어 진다(McLaen & Jandrić, 2020, 31-36).

포스트 디지털 매체의 내용에 내재되어 무의식적으로 조종되고 통제되어 질 수 있는 심리지배(gaslighting), 외모, 재정, 인종, 성, 폭력 등에 대한 정서적 학대, 왜곡, 편협, 그리고 편견 등에 대하여 포스트 디지털 세대에게 무엇보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함양이 요구된다(이원일, 2020, 127-139).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서도 서구화된 문화를 보편적으로 정당하게 여기는 관점으로 개인적이며 특수한 문화적인 차이를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스트 디지털 세대들로 하여금 디지털의 보편성에서 개별성을 추구하는 역량에 대한 함양이 요구되어진다(McLaen & Jandrić, 2020, 31-36).

이상에서 언급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의 방법론 및 교육목회 유형과 폴링과 밀러 등이 언급한 기존의 여섯 가지 유형을 종합하면, 교육목회를 위한 아홉 가지의 유형이 가능하며, 각 유형마다 특성과 한계점이 있다. 아홉 가지의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도표화 하고,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표 1〉 교육목회 유형

간학문성 및 사역현장	개인	교회	사회
비판적 과학적 방법	(1)	(2)	(3)
비판적 고백적 방법	(4)	(5)	(6)
비판적 상관관계적 방법	(7)	(8)	(9)

IV. 포스트 디지털 세대 교육목회 유형들의 핵심역량

포스트 디지털 세대를 위하여 실천신학으로서의 교육목회에 대한 아홉 가지의 유형들과 이에 따른 핵심역량을 언급함에 있어 각각의 주된 목적은 개인형성, 교회형성, 사회형성 등이다. 세 가지의 주된 목적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방법론과 세 가지의 사역현장의 조합으로 말미암아 아홉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구해야 할 핵심역량(Negrut & Arsith, 2013; 소경희, 2017)으로 구체화 된다. 아홉 가지 유형에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역량들은 포스트 디지털 세대가 지녀야 할 전인적 차원에서의 역량들이다.

1. 비판적 과학적 방법 & 개인

일반학문을 규범으로 하여 교회로 하여금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정체성 형성 및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신학으로서의 교육목회 유형이다. 일반 심리학에 기초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한다. 오늘날 인공지능으로 말미암는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을 도와 나간다.

핵심역량으로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포스트 디지털 문화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개인의 메타 데이터로서의 정보 유출로 말미암아 개인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심층학습에 의해 조종과 통제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다(McLaen & Jandrić, 2020, 55-57).

정의적 차원에서의 핵심역량은 상상력으로 말미암는 감성 및 창의성 함양으로 말미암아 하이터치 영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역량이며, 행동적 차원에서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끊임없는 경쟁과 업적강조 등으로 말미암는 피로사회로 인하여 탈진해 가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로 하여금 개인적 차원에서 영적인 회복탄력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역량 등이다.

2. 비판적 과학적 방법 & 교회

일반학문을 규범으로 하지만 교회의 일차적 관심은 사회과학에 기초하여 교회 정체성과 사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목회 유형이다. 사회의 변화로 포스트 디지털 세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교회는 사회과학에 기초하여 그들을 도우려고 한다. 역동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등의 심리학에 기초한 목회상담이나, 사회학에 기초하여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제시하려고 한다(강희천, 1999, 33).

목회자는 교회 정체성과 사명 형성을 위하여 사회과학으로서의 심리학 등에 기초한 목회상담학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갈등과 고민 등에 대한 치유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상적인 목회자상은 교회에서 상담가로서의 치유자, 교회의 포스트 디지털 세대 사역을 위해 음악가, 소그룹 지도자, 문화 사역자, 그리고 놀이 지도자 등이며, 이들과 함께 포스트 디지털 세대를 위한 포스트 디지털 교회를 형성하려고 한다.

핵심역량은 사회학, 심리학 등의 사회과학에 기초하여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개념화할 수 있는 역량, 교회의 과거 전통을 벗어나서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며 포스트 디지털 세대 간의 문화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성인중심 사역에서 포스트 디지털 세대 중심 사역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역량 등이다.

3. 비판적 과학적 방법 & 사회

해방신학의 관점과 유사하게 일반학문을 규범으로 하여 교회로 하여금 사회 개혁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신학으로서의 교육목회 유형이다. 교육목회의 일차적 관심은 교회로 하여금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가정의 다양화에 주목하게 하며, 다문화 가정, 한부모, 조부모가

정 등에 속한 포스트 디지털 세대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또한 포스트 디지털 세대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시대의 생태계의 변화,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복지 등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교육목회를 위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 및 비기독교인 전문가와도 협력하여 포스트 디지털 세대로 하여금 가정 밖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문제와 갈등 해결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린 관점을 갖도록 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의 사회개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함으로, 교인들과 포스트 디지털 세대로 하여금 교회와 사회기관 및 비영리단체 사이의 구분에서 오는 혼동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역량은 삶의 현장에 대한 관찰 및 서술하기, 그리고 현장에 대한 분석 등의 역량, 삶의 현장에서 현존하고 있는 다양한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정서에 대한 이해 역량,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포스트 디지털 세대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Negrut & Arsith, 2013, 45) 등이다.

4. 비판적 고백적 방법 & 개인

성경과 교회 전통을 규범으로 하여 교회로 하여금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신앙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실천신학으로서의 교육목회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회심을 강조한다. 교회사적으로는 대각성이나 부흥운동이 이 유형에 속한다. 오늘날에는 개인의 영성생활을 위한 영성훈련을 중요하게 여긴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를 위해 오늘날 어린이 영성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영성교육이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어린이를 중요한 사역의 대상으로 여김으로 말미암는 어린이 신학(Berryman, 2009; Brown, 2009) 등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각

교단별로 유아세례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서 유아성찬을 비롯하여 아동세례 및 아동세례 이후 교육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핵심역량은 포스트 디지털 세대로 하여금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해 역량, 하나님의 초월성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영성이해 역량, 첨단 과학의 시대로 여겨지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영적인 삶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역량 등이다.

5. 비판적 고백적 방법 & 교회

성경과 교회 전통을 규범으로 하여 교회의 정체성 형성하고자 하며, 만인제사장직에 기초한 교회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목회 유형이다.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이기 보다 성경 그 자체와 교회의 전통적 해석에 성실하며, 이로 말미암아 회중으로서의 교회 형성과 운영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정의한다. 성경의 재해석 등을 중요한 과업으로 여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교회 사역과 한국에서는 은준관 박사의 실천신학 방법론(은준관, 1999)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안수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주도 되는 교육목회 보다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와 소통이 가능한 사역자에 의한 예배, 가르침, 친교, 봉사, 선교 등으로 말미암는 교육목회를 강조한다.

포스트 디지털 세대에게 요구되어지는 핵심역량은 성경과 교리적 전통에 대한 전수 및 이단 사이비 등에 대한 분별 역량, 실천적 교회로서의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Park, 2017; Kim, 2021),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명을 깨달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전도 및 선교에 대한 사명 수행 역량 등이다.

6. 비판적 고백적 방법 & 사회

교회는 사회적 및 문화적 맥락 속에서 신앙공동체로 정의되며, 성경을 비롯한 교회와 전통을 재해석하는 것을 규범으로 하여 교회로 하여금 사역의 범위를 일상생활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아간다. 사회과학을 비롯한 일반학문은 교회의 정체성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적용함으로써 제네바 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하고자 한 종교개혁자 칼뱅의 사역이 이 유형에 속한다.

포스트 디지털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교회의 핵심 구성요소인 예배, 가르침, 교제, 봉사, 선교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목회를 추구하지만, 이 중에서 관계성 형성을 위하여 포스트 디지털 세대 간의 교제를 우선시하며, 교제에 있어서도 교회 내의 교제 범위를 벗어나서 교회 밖과의 교제를 봉사와 선교 차원에서 추구하는 유형으로서의 교육목회이다. 포스트 디지털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한 핵심역량은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경과 교회 전통 재개념화 및 이단사이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역량,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주요한 삶의 자리인 가정과 학교에서 신앙적 관계성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교회 밖의 포스트 디지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포스트 디지털 매체 활용 역량(Negrut & Arsith, 2013, 47, 48) 등이다.

7. 비판적 상관관계적 방법 & 개인

일반 학문과 개인에 대한 비판적 상관관계로 말미암아 경계성(liminality)을 추구하는 교육목회 유형이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는 국가, 시장, 그리고 개인 등의 가시적 경계가 약화되어지는 반면에 전통과 혁신, 교회와 사회, 디지털과 인간, 말씀과 삶, 감성과 영성 등의 융합으로 말미암는 경계성

이 추구된다(McLaen & Jandrić, 2020, 47).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신앙성숙에 관한 기독교의 전통적 해석과 발달심리학적 이론 사이의 대화로 말미암아 소명을 다루고 있는 신학이 이 유형에 속한다. 포스트 디지털 세대로 하여금 신앙 성숙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체성과 감성이 포함된 전인적이며 통합적인 참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명을 찾도록 도와 나가는 유형이다.

핵심역량은 포스트 디지털 세대로 하여금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적 소명에 기초하여 기독교적 인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역량, 자신의 독특한 감성과 영성의 만남을 추구하는 역량, 신앙과 삶의 균형을 추구함에 있어서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다루기 위한 관계적 기술에 대한 역량(Friedrich Schweitzer, 2004, 39) 등이다.

8. 비판적 상관관계적 방법 & 교회

실천신학적 교회를 위하여 일반 학문과 교회 전통의 비판적 상관관계로 말미암아 교육목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포스트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회이다(James Poling & Donald Miller, 47). 폴링과 밀러에 의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천신학자는 제임스 파울러(James W. Fowler) 이다

알렉산버에 의하면 포스트 디지털 매체는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에서 ‘과’에 해당하며, 하늘로서의 영성과 땅으로서의 자연 등의 융합을 언급하고 있다(2011, 145). 포스트 디지털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의 경우 예배는 디지털 매체가 포함된 놀이 중심으로 드러지지만, 분반학습의 경우는 물입을 위해 내부를 어렵게 하는 반면에 촛불을 켜놓는 등의 빈티지의 환경 가운데 소그룹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등의 교육목회의 유형이다.

핵심역량은 교회 전통과 사회과학의 상관관계를 통한 교회의 재개념화를 위한 비판적 성찰의 역량, 교회형성을 위하여 포스트 디지털 세대가 익숙하

게 다루는 포스트 디지털 매체를 실천적 교회형성을 위한 매체 활용 및 제작 역량, 포스트 디지털 세대 교회의 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협업능력(collaboration ability) 역량 등이다(Alexenberg, 2011, 33).

9. 비판적 상관관계적 방법 & 사회

실천신학적 접근으로서 교회로 하여금 기독교 전통과 일반 학문의 비판적 상관관계로 말미암아 사회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목회이다. 교회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로 하여금 신학과 일반학문의 간학문적 접근에 의해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마을목회로 일컬어지는 공적신학에 의한 목회 유형이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매개로 하여 지역사회개발선교(CHE, Community Health Evangelism), 디지털 문화, 교육, 환경문제 등의 융합에 의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환경정의 운동(Ecological Justice Movement)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McLaren & Jandrić, 2020, 40-43).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주된 삶의 자리인 가정 및 학교 등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과 이에 대한 해결책 모두가 애매모호한 경우, 무엇이 갈등의 요소인지와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거버넌스 리더십이라고도 하는 적응적 리더십(adaptive leadership)을 중요하게 여긴다. 교육목회자는 경계성을 추구하는 모험가로 여겨지며, 교인들과 함께 사회적 및 문화적 회복 탄력성 함양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적이며 수평적 관계성을 가진다(Jordan, 2020, 237).

핵심역량으로는 포스트 디지털 문화에서 데이터와 정보는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반면에 묵시적 지식(tacit knowledge)은 경시하는 경향 등의 포스트 디지털 문화에서도 당연하게 여기며 사용되는 왜곡된 데이터 정보, 그리고 은유적 언어들이 재생산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역

량, 익숙함과 낯설음의 경계선에서 신앙적 사회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역량(Chae, 2019; Negrut & Arsith, 2013, 50), 포스트 디지털 세대 중 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능동적으로 함께 추구하는 역량 등이다,

V. 나가는 말

포스트 디지털 세대에 대하여 실천신학적 접근에 의한 교육목회는 교회와 사회를 사역의 현장으로 하는 여섯 가지의 유형이 소개되어 왔다. 이러한 분류는 교육목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유익을 도모한 공헌점이 있으나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사회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교육목회의 유형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오늘날의 시대는 디지털 시대를 넘어선 포스트 디지털 시대이다.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생활 속으로 보편화 및 심화되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으로 말미암는 과학기술의 변화로 인공감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인간으로서의 독특성은 인간의 지능에만 있기 보다는 오히려 감성 및 영성에 있다. 이를 포괄하는 개념이 포스트 디지털 시대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가 미래세대로서의 포스트 디지털 세대이다.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포스트 디지털 세대는 고립적인 개인주의가 아닌 관계적 개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포스트 디지털 세대의 관계적 개인형성을 포함하여 본 논문에서는 실천신학으로서 아홉 가지 유형의 교육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교육목회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천적 차원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는 아홉 가지의 교육목회 유형에 따른 핵심역량을 전인적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그러나 핵심역량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하위역량에 대한 후속 연구와 이를 구체화

하는 교육목회 전략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육목회에 대한 학문적 명칭인 기독교교육에 대하여 실천신학적 접근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홉 가지의 유형이외에도 사역현장 분류에 따라 더 다양한 유형들이 가능하다. 가정을 사역현장으로 하는 경우, 학교를 사역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역현장에 따른 유형 분류는 더 다양하게 연구되어질 수 있다. 사역의 현장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교육과 교육목회에 대한 연구는 실천신학적 접근에 의한 유형들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연구로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희천 (1999).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ang, H. C. (1999). *Critical refl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김정준 (2016). **“미래세대와 영성교육.” 미래시대, 미래 세대, 미래교육**. 김도일 책임 편집.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 [Kim, J. J. (2016). Future generation and Spiritual education. *Future Era·Future Generation·Future Education*. Seoul: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517-566.]
- 김영래 (2021). **기독교교육과 미래세대**. 서울: 통독원.
- [Kim, Y. R. (2021). *Christian education and future generation*. Seoul: Toung Dok Won.]
- 소경희 (2017).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Sho, K. H. (2017). *Understanding curriculum*. Seoul: Kyoyookbook.]
- 안현정, 송민희 (2005). 디지털 후세대(Post Digital Generation)에 따른 시각커뮤니케이션 표현 전략.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13, 218-224.
- [Ahn, H. J. & Song, M. H. (2005). *Visual communication strategy for post digital generation*. *Korea Society of Design Trend, Vol. 13*, 218-224.]
- 오수연 (2021). MZ세대를 잡아라!. **마케팅**, 55(7), 52-58.
- [Oh, S. Y. (2021). MZ marketing! *Marketing*, 55(7), 52-58.]
- 은준관 (1999). **실천적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Euhn, J. K. (1999). *Practical ecclesiology*.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이원일 (2014). **성인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한들출판사.
- [Lee, W. I. (2014). *Reconceptualization of adult religious education*. Seoul: Handle Publishing.]
- 이원일 (2020). **“코로나19와 교회교육 커리큘럼: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 역량.”** 코로나 19를 넘어서는 기독교교육, 김정준 책임편집. 서울: 동연.
- [Lee, W. I. (2020). Covid 19 and curriculum of church education: Key competency

- of media literacy. *Christian Education Beyond Covid 19*. Seoul: Dong Yoern.]
- 이주영·조경숙 (2021). MZ세대 특성이 나타난 패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사례 연구. **복식** 71(6), 37-53.
- [Lee, J. Y. & Jo, K. S. (2021). A case study of mz generation targetted fashion brands' collaboration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71(6), 37-53]
- 주현식 (2018). 포스트디지털 퍼포먼스의 미학-〈천사:유보된 제목〉과 혼합 현실(Mixed Reality)의 비전. **드라마연구**, 55, 125-155.
- [Ju, H. S. (2018). The aesthetics of postdigital performance-〈An angel: the reserved title〉 and the vision of mixed reality. *The Study of Drama*, 55, 125-155]
- 천현득 (2017). 인공 지능에서 인공 감정으로: 감정을 가진 기계는 실현가능한가?. **한국철학회**, 131, 217-243.
- [Cheon, H. D. (2017).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rtificial emotions: Is an emotion robot realizabl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131, 217-243.]
- 최은희 (2021). MZ세대와의 소통은 다른가요?. **충북 Issue & Trend**, 45, 28-32.
- [Choi, E. H. (2021). What's the different communication with mz generation?. *CHUNGBUK Issue & Trend*, 45, 28-32.]
- 홍소희 (2021). MZ세대 특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메소드에 관한 연구.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24(1), 113-120.
- [Hong, S. H. & Kim, M. (2021). A study on communic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z generation.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24(1), 113-120.]
- Alexenberg, M. (2011). *The future of art in a postdigital age*. UK/Chicago, USA: intellect Bristol.
- Berryman, J. W. (2009). *Children and the theologians: Clearing the way for grace*. New York: Morehouse Publishing.
- Brown, S. (2009). *Play*. New York: The Penguin Group.
- Chae, H. S. (2019). Nature-based educational ministry with youth based on maria harri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7, 109-133.

- Farley, E. (1983). Theology and practice outside the clerical paradigm. *Practical Theology: The Emerging Field in Theology, Church, and World*. (Ed.), Don S. Brow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21-41.
- Kim, S. W. (2021). Educational ministries in Korean churches amid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5, 103-131.
- McLaren, P. & Jandrić, P. (2020). *Postdigital dialogues: On critical pedagogy, Liberation The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 Naisbitt, J. Naisbitt, N. and Philips, D. (2000). *High tech high touch*. 안진환 옮김. *하이테크 하이터치*. 서울: 한국경제신문.
- Negroponte, N. (2013). "Beyond digital." *Wired*. accessed in Negrut, Vasilica & Arsiith, Mirela (2013). *Designing and implementing competency-based curriculum*. Lambert Academic Publishing.
- Jandrić, P. (2020). "Postdigital science and education." in *Postdigital Dialogues: On Critical Pedagogy, Liberation The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 Jordan, S. (2020). *Postdigital storytelling: Poetics, praxis, research*. London & New York: Routledge.
- Park, J. K. (2017). An educational ministry for children through the community of faith-enculturation paradigm: The case of G churc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9, 211-244.
- Poling, J. & Miller, D. (1985). *Foundations for a practical theology of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 Ricoeur, P. (1992). *Oneself as another*.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weitzer, F. (2004). *The postmodern life cycle: Challenges for church and theology*. Missouri: Chalice Press, 124, 125.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emission&logNo=10139504703>

Abstract

Types of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Post Digital Generation

Wonil Lee

Professor, Young 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nine types of educational ministry based on the practical theology in Christian Education. For the purpose this article emphasizes an individual dimension including church, society dimensions. An individual dimension is based on the spirit of post digital era within sociocultural area in different with personal-existential area of the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 and life cycle theology area of the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Post digital era means the humanization of digital, digital friendly, and emotional digital cultural characteristics. Post digital generation means child, youth, young adults those who are accustomed with post digital cultural of the post digital era. The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post digital generations categorized into nine types according to correlation with individual, church, and society as a field of ministry and critical scientific method, critical confessional method, and critical correlational method as an interdisciplinary which are composed of Christian tradition and contemporary science. Representative key competencies of nine types in the educational ministry are media literacy, relational identity, communication, high touch, discipleship, making and using media, integrative vocation, collaboration abilities, and home, school, and social resilience in relation with multicultural generations.

《 **Keywords** 》

Practical Theology, Post Digital Generation, Individual Dimensions,
Educational Ministry, Key Competences.

- 투고접수일 : 2022년 5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6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6월 29일